



HSBC

2021년 3월 24일

News Release

HSBC, ESG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파생상품 출시

HSBC 코리아가 국내 ESG 시장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혁신적인 금융 파생상품을 내놨다.

HSBC 코리아 글로벌 마켓팀은 하나금융투자와의 1120 억원 규모의 2년 만기 원·달러 “ESG 연계 금리통화스왑”을 3월 23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이다.

금융지주사인 하나금융이 만기까지 ESG 역량을 강화하여,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받는 ESG 리스크 등급이 개선되면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가 HSBC 코리아로부터 기존 금리에 더해 가산금리를 받게 되는 구조이다.

이번 거래는 채권과 대출이 주였던 ESG 금융시장에 HSBC가 ESG 파생상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얻게 된 것이다.

정은영 HSBC 코리아 대표는 “이번 ESG 연계 금리통화스왑 덕분에 ESG 금융상품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HSBC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세계를 열어주고자 하는 HSBC의 전략적 노력을 상징한다.”라고 말했다.

HSBC 그룹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과 OECD 가입국, 2040년까지 나머지 국가에서 석탄 관련 금융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7천 5백억 원-1조 달러 자금을 지원 및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HSBC는 2020년에 ‘세계 최고 지속가능은행,’ (유로머니), ‘지속가능을 위한 올해의 투자은행,’ (더 뱅커)에 선정된 바 있다.

보도자료 문의

서현진 부분부장 02-2004-0882

hyonjinsuh@kr.hsbc.com

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64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HSBC 그룹의 자산은 2조 9천 8백 40억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This news release issued by
HSBC Korea